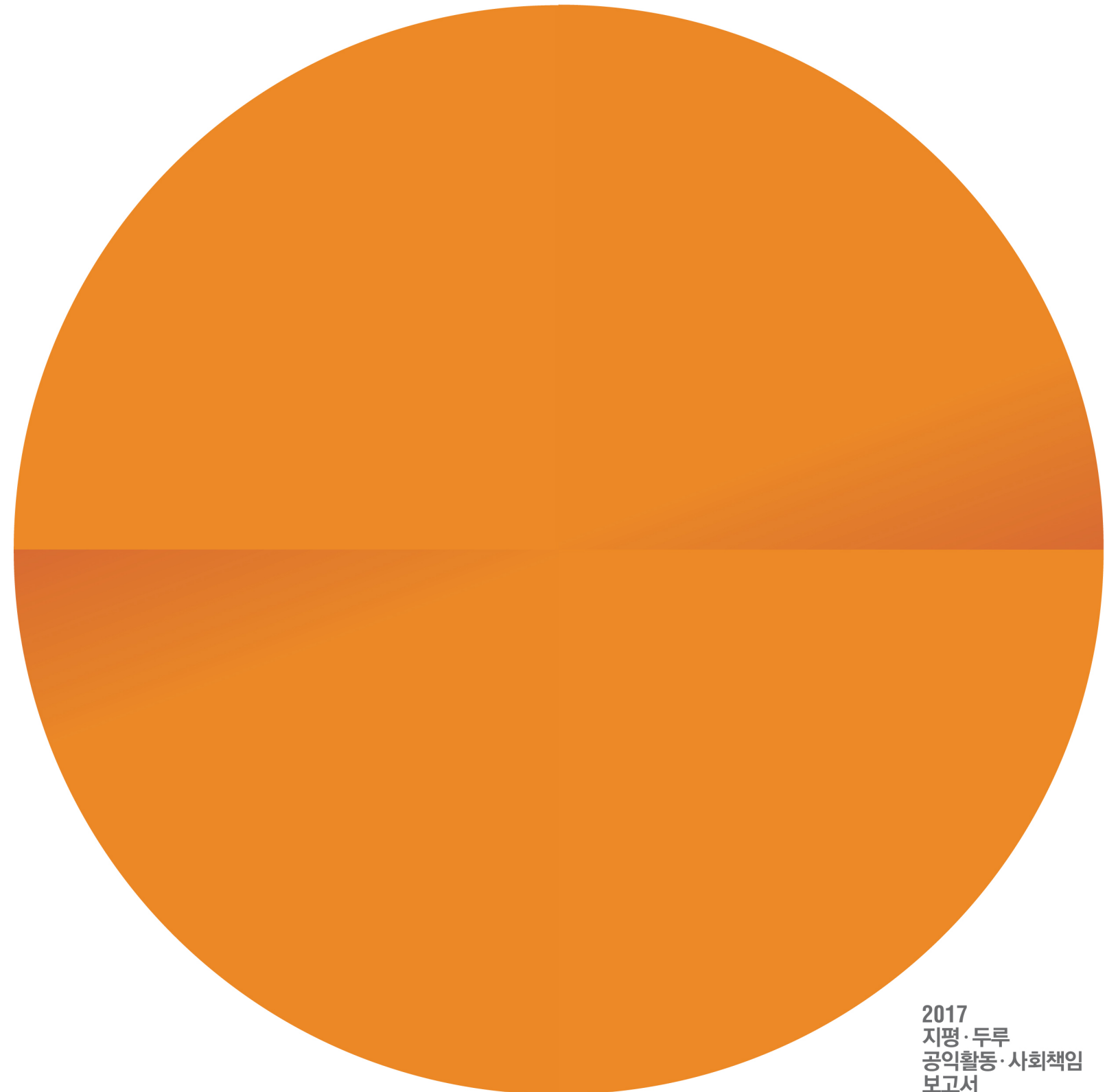


JIPYONG
DUROO

PRO BONO
CSR

ANNUAL
REPORT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사단법인두루**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

사단법인 두루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9층
TEL 02.6200.1853 FAX 02.6200.0811
www.duroo.org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사회책임
보고서

CONTENTS

MESSAGE

인사말

02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지표

04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6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 장애 인권활동
- 아동·청소년·교육활동
-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 국제 인권활동
- 기타 공익활동
-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8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 사회공헌활동
- 기부활동
- 공익교육활동

18

INTERVIEW

공익활동
이야기

- 최초의 수용자 자녀에 관한 연구 이야기
- 자녀와 함께 하는 공익활동 이야기
- '올해의 봉사활동왕' 이야기
- 새내기 센추리클럽 이야기
- 협력 단체 이야기

24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32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34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36

2017 JIPYONG DUROO PRO BONO CSR REPORT

MESSAGE

인사말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척박합니다.

각자 느끼는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고단한 짐을
서로 나누면
희망이 배가된다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양영태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척박합니다.

각자 느끼는 삶의 기쁨과 고단한 짐의 무게는 서로 다르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름다움과 기쁨, 힘든 세월과 고단한 짐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희망과 위안이 배가된다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창립 시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으로 공익활동을 시작하여
18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공익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여 두루와 지평이 힘을 합쳐 공익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평과 두루의 구성원들은 공익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시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실천한 2017년 한 해의 공익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지뢰 피해자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장애인단체와 힘을 합쳐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을 제공하여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도 출간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지평과 두루의 구성원들은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지평과 두루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 & 지표

“나눔, 배려, 참여”

국내 법무법인 사회공익활동의 시작은 지평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를 통해 사회공익활동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2017년 지평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5,935시간으로 올해에도 5,000시간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보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502시간이 늘었고,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상담이 골고루 늘어 법률지원 내용이 보다 풍성해졌습니다.

변호사들의 참여율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시간은 49.88시간으로 50시간에 달합니다. 119명의 변호사 중 116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97% 이상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도 72.27%에 이릅니다.

2017년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직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시간도 크게 늘어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2,500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총 공익활동 시간

5,935.29^h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5,935.29시간 / 119명)

49.88^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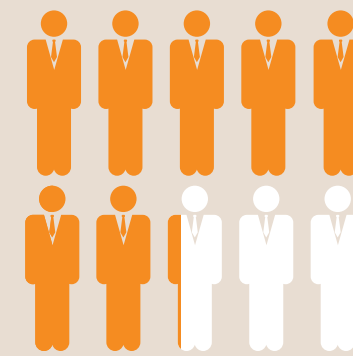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116명 / 119명)

97.48%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6명 / 119명)

72.2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소속변호사 (53명 / 54명)

98.15%

구성원변호사 (63명 / 65명)

96.92%



공익활동 수치

755^건

공익소송 대리 81^건



공익자문 의견 409^건

공익상담 265^건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 (직원 포함)



1인당

7.46^h



전체구성원 (346명)

2,581.5^h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1

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지평과 두루는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업자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화면해설,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02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시설 밖에서의 삶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오늘도 온갖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03

지뢰 피해자 위로금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승소

두루는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지뢰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04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최초의 종합적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정기관 수용자 전수조사, 양육자 및 보호자 설문조사, 수용자 자녀 심층면접조사를 포함하여 국내·외 법과 제도 및 국제인권규범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05

국내 로펌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지평은 7월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5년 공익활동보고서에 들어간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을 독자적인 보고서로 발행한 것입니다. 지평은 사회책임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06

국가인권위원회 십대성매매 법령 개정 권고

두루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성매매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권고 내용은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들이 소년재판을 받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십대성매매 전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07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수상

두루는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에 '두루가 바꾸어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활동 영상을 출품하여 재능나눔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이 직접 만든 이 영상은 2017년 지평과 함께 펼쳐왔던 공익활동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08

사회적기업 법률진단 실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나 소셜 벤처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발달장애인 2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타'를 대상으로 법률실사를 진행하여 법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09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 입양절차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십대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 관련법,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활동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10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그리고 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평과 두루는 SK SUPLEX추구협의회,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동그라미재단, 신나는조합 등 여러 지원조직과 협력하였습니다.

‘ 사 람 ’ 이 주 인 공 인

세 상 을 꿈 껌 니 다 .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 장애 인권활동
- 아동·청소년·교육활동
-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 국제 인권활동
- 기타 공익활동
-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1

장애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소송(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헌법소송) 수행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청구소송 수행
- 중증장애여성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과 장애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수행
-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입법운동
-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
- 수화 소모임 '수다' 운영



중증장애여성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과 장애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지평과 두루는 방광암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방광암 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방광암을 진단받은 중증장애여성(피해자)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병원은 암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급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검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의료행위 시 다르게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은 의료행위에서의 '제한'에 해당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소정의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4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연구용역은 선진국의 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률 및 정책 등 비교연구, 장애인 당사자 및 시설운영 종사자 인식조사, 장애인 탈시설 전환서비스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중앙과 지방의 과제 및 법률 개정·재정 마련, 장애인 탈시설 방안 및 탈시설 정책 전환과 준비 등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를 통해 탈시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수행

지평과 두루는 한 서점주인이 설치한 장애인용 경사로의 철거를 주장하는 경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도로점용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수행하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위 건물에 설치된 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서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청구는 경산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경산시와 서점이 극적으로 협의하여 경산시의 부담으로 건물의 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활동

두루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입양 절차를 중앙·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며 입양이 아동복지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십대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입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문활동

두루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십대성매매의 알선 현장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하고, 십대성매매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분명히 하는 취지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현장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들이 소년재판을 받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십대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회법률단 활동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라며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35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 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두루는 국회법률단으로 합류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02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주요 활동

-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대리
- 아동학대형사사건 피해아동 대리, 학대피해아동 파양사건, 친권자지정심판청구사건 대리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및 무고사건 피해자 대리
-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보호치료시설 현장점검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제도·정책 상시 자문
-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를 위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규제 등 입법운동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 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위한 입법운동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법률자문, 심리지원팀을 위한 법률지원 안내서, 의료 Q&A집 집필·감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보호 정책 연구 및 자문
- 수용자 자녀와 가족지원시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기독교세진회,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비영리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내서 집필
- 미혼한부모 가족지원시설 애란원 법률자문 및 미혼모 법률교육, 경기도섬터 종사자 법률교육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아동권익보호학회, 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서대문구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소년선도심사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03

사회적경제 · 기업 공익활동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 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베어베터에 대한 사회적기업 법률진단 프로그램 시행
- SK SUPEX추구협의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참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주관 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참여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소셜 벤처 대상 법률자문(지원대상 : 마리몬드, 두손컴퍼니, 플리, 아쇼카한국, 이원코리아 등)
- 기획재정부, <유럽의 협동조합법 원칙> 정리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 SK SPC 프로젝트 법률지원(지원대상 : 공공미술프리즘, 위사켓 등)
- 한국사회투자 임팩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법률지원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협력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법률상담(지원대상 : 더블루피엠씨, 트리디비 등)
- 동그라미재단 LCP 프로젝트 법률지원(지원대상 : 글로벌 이너피스 등)
-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법률지원(지원대상 : 사부코리아, 어웨이크 등)
- 크레비스파트너스와 업무협약 및 협력 기업 대상 법률교육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 참가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대상으로 법률리스크 진단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펼치고 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법률리스크 사전진단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의 첫 번째 법률실사 대상이 된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현재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4월부터 약 한 달간 베어베터의 법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법인일반, 인·허가 및 규제, 자산, 재무 및 회계, 주요 계약, 지적재산권, 인사·노무 등의 영역을 망라한 폭넓은 법률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임팩트금융 법률지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가 5월 출범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평과 두루는 임팩트금융에 적합한 법적 구조를 만들고 투자 형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평과 두루는 임팩트금융의 법적 주체가 될 법인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임팩트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직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평과 두루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하는 루트임팩트와의 협력

지평과 두루는 2015년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루트임팩트가 '헤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야심차게 개장하여 다양한 입주사를 루트임팩트의 새로운 파트너로 맞은 해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헤이그라운드 신축 과정에서 루트임팩트를 위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헤이그라운드 오픈 이후에는 마리몬드를 비롯한 입주사를 상대로도 다수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루트임팩트와의 공고한 협력 하에 성수동 소셜 벤처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및 토론회 참여

지평과 두루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하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그 결과 9월에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12월에는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되어 두루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UN 사회권위원회 4차 최종권고 입법적 이행방안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4차 최종권고의 이행방안을 입법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이주·외국인, 노동, 사회보장 등 30개 분야에 대한 우려 사항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에서는 각 권고 사항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민 체류자격과 출입국 문제 해결 및 대응

지평과 두루는 한 해 동안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사기 사건에 휘말려 체류자격 연장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 인정자, 비자신청 불허로 가족결합권을 침해받는 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제에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이주민 관련 단체와 개인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04

국제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송, 임금체불 관련 소송
-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 이주민센터 친구 정기 상담 및 법률자문
- 농·축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법률자문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자문
- 미얀마 한인회 법률자문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러시아 중소기업연합회, KOTRA 러시아무역관 법률자문
- 외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관련 법률자문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원 조교의 지속적 괴롭힘 관련 법률자문
-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가족결합권이 침해된 외국인에 대한 법률자문
- UN 사회권위원회 4차 최종권고에 대한 입법적 이행방안 연구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참여
- 2017 PILNet Global Forum 및 컨퍼런스 참여
- 이주민 대상 법률교육

지뢰 피해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대리

두루는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로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지뢰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두루는 피고의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행정소송에서는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법원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는 두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기타 공익 활동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대리

지평과 두루는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스토킹 및 협박사실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초기에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여성성범죄의 도움으로 지평과 두루의 법률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 선거운동의 자유 · 정치적표현의 자유 등 / 선거기간 중 집회 · 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환경 / 송전선 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 여성 /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대리
- 노동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자문
- 노동 / 서울여성노동자회 법률자문
- 통일 /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
- 인권 전반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인권침해 정지사담
- 인권 전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
- 인권 전반 /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국가배상소송
- 인권 전반 / 군 훈련소 내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인권 전반 / 군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인권 전반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 · 4 · 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이음 장애인자립센터 법률자문
- 시민단체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소가 한국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열매나눔인터네셔널 법률자문
- 시민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시민단체 / 아름다운재단 법률자문
- 기타 / 지뢰 피해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 기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지평과 두루는 선거의 자유, 여성, 노동, 환경, 통일 등 다양한 공익법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지평은 강용주님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주님은 전남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1999년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02년과 2010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평은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근거가 된 보안관찰 갱신처분이 위법하고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용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조항인 제18조 제2항과 제4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06

공익법 교육 · 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 두루 공익변호사 추가 채용
- 로펌 공익전문변호사 정기회의 참여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사무국 회의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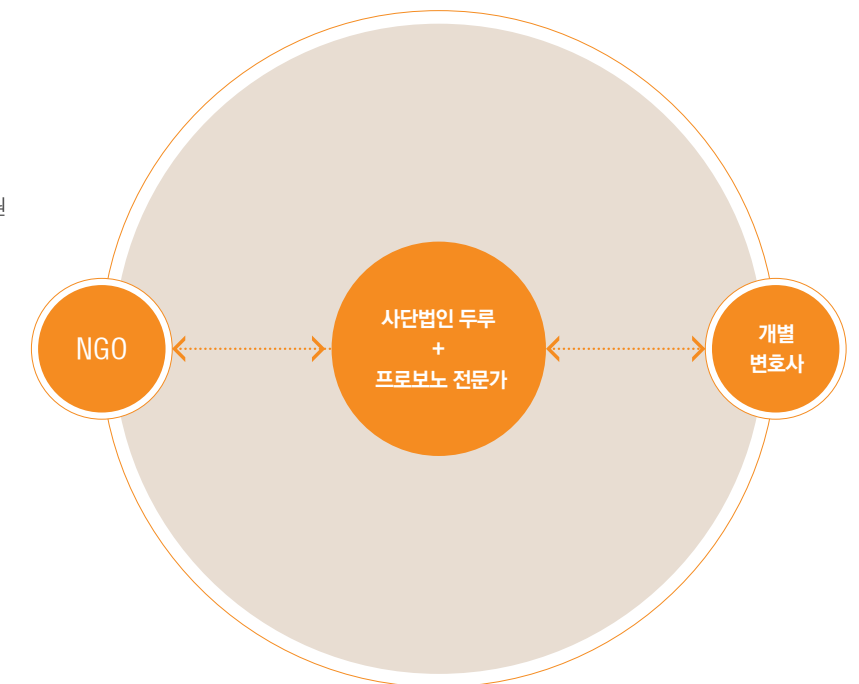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 심포지엄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4월(상반기)과 9월(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공익단체와 로펌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결성되어 1주년을 맞이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을 합쳐 로펌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활동 중개시스템 구축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별 변호사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 · 인권단체 사이에서 공익법활동을 중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GO가 쟁점화하는 의제들을 공익활동을 원하는 개별 변호사에게 연결
공익법영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법활동 매뉴얼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및 참여**

두루는 7월 5일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부제 : 변호사 공익활동 내비게이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내비게이션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라운드테이블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발제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지평과 두루는 8월 16일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평은 내부 교육을 통하여 난민 지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넓히고, 향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두루는 여름과 겨울 각 3주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영창제도 등 관련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지구인의 정류장,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에 파견되어 단체의 활동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기록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사건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으면서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역할, 개선될 제도가 다른 법적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재 학생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가 두루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이라는 것뿐이었지만, 두루 홈페이지를 통해 두루에서 제가 학부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이번 여름방학을 보낼 곳은 여기서'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루는 다른 기관과 달리 수습생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수습생들로 하여금 공익변호사의 삶에 대해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어서 공익변호사의 꿈을 키우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기록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사건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으면서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변호사님들께서 입을 모아 '공익소송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무의식적으로 '공익변호사는 수임료도 많이 받지 않으니 결과가 나빠도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부끄러웠고,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돌아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원보람 학생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익소송은 변호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대단한 분들, 인권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소수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익변호사는 소수의 특별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가 지닌 용기, 법률지식 및 인권 감수성 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공익소송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변호사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공익소송은 주로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 자체가 크고, 소송 수행 방식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한 사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민사법, 형법, 공법 분야의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외에도 행정적인 여러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과 그 책임을 위해서는 뛰어난 법률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익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님들은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역할, 개선될 제도가 다른 법적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이웃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01

사회공헌 활동

지평과 두루는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계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따뜻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 정리를 돕습니다. 노숙인분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및 아름다운 토요일 활동

지평과 두루는 5월 13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제6회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에서 기증한 총 2,600여 점의 기증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 여러 지원 사업 중 소외아동 정서지원사업에 쓰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2년마다 한 번씩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2년부터 6년째 농촌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에 1박 2일로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 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10월에도 같은 곳으로 벼 베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산정화 활동

지평과 두루는 6월 24일 관악산에서 산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매해 산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총 19명이 참여하여 돼지풀 제거 및 등산로 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 놀이공원 나들이

지평과 두루는 8월 19일 롯데월드에서 '겨레얼학교와 지평가족이 함께 떠나는 신나는 놀이공원 나들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 학생, 교사, 지평 임직원 총 56명은 롯데월드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레얼학교는 저소득층 탈북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2세 아동들이 정착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교육에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과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

지평과 두루 구성원 30여 명은 11월 25일 '2017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평은 1가구에 200장씩 10가구,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과 두루는 2005년부터 13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2

기부 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도서제작 후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한 최초의 해설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가 지평의 후원으로 12월 출간되었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회장 지평 임성택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하였고, 지평 임성택 변호사와 두루 이주연 변호사가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장애인 차별을 조금 더 인식하고 개선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기금 후원

지평과 두루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공익인권기금을 후원하였습니다. 2016년 4월 개소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변론을 기획하고 민변 회원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민변 공익 변론 매뉴얼 및 변론 백서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도서제작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도서제작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0주년 기념 행사 지원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미혼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애란원' 지원
- 사북지역의 교육을 위한 협동조합 '천개의 숨'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음악회 지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지원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 난민인권센터 인건비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얼 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 구룡마을 화재 피해자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기금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연합 청소년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 '빵과 장미'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법교육 비용 지원



성매매 인권실태 및 대안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3월 29일 올해 첫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십대성매매 인권실태 및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성매매 실태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에 강연을 들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동권리 교육(올바른 부모 되기 교육)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6월 9일 세이브더칠드런을 초청하여 아동의 권리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들어 보았습니다. 아동과 권리 이해하기, 아동학대 예방하기, 아동권리 실시하기로 나누어진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 구성원들은 강연자의 안내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는 방법과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 현황과 전망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지평 공익 주간을 맞아 두 차례 특별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29일 특별 강연에서는 환경전문가 오성규 위원을 모시고 특별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오성규 위원은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을 거쳐 2013년부터는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환경 전문가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 현황과 전망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구성원들이 좀 더 쉽게 공익에 다가서고, 공익 ·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익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03

공익교육 활동



우리가 일하는 이유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8월 31일 또 한 번 특별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두손컴퍼니 박찬재 대표를 모시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손컴퍼니는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소셜 벤처로, 노동자들과 함께 고객의 상품에 특화된 배송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두손컴퍼니의 설립 당시 이야기, 앞으로의 전망 등을 박찬재 대표의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11월 28일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를 초청하여 '성 소수자의 인권 - 가족구성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성 소수자는 출생, 아동청소년 성장기, 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겪게 되는데, 특히 혼인은 주택, 이민, 상속, 보험, 양육,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등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날은 외국의 성 소수자 관련 법률과 정책의 변천 과정, 동성결혼의 법적 쟁점, 성 소수자 인권과 법률가의 역할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INTERVIEW

01 공익활동 이야기

최초의 수용자 자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용역팀과 향후 과제를 논하다

연구용역팀
성결대학교 신연희 교수,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 최경옥 박사,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 최명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 최초록 변호사
진행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

지평과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과 한 해 동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로 전국의 수감자에 대한 전수조사, 수용자 자녀 심층면접조사, 국내·외 법제도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검토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실태를 알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용역팀의 일원인 세움의 이경림 대표, 최경옥 박사,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 지평의 최명지 변호사에게 연구의 의의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경림 : 세움이 2015년 설립된 후, 같은 해 11월 수용자 가족 지원 단체를 초청하여 한일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언론에서 주목하여 이듬해 기획 기사가 연재되었고, 이를 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평이나 두루는 이미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을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강정은 변호사가 수용자 자녀의 비행 사건을 적극적으로 맡아 주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옥 : 연구용역 시작 전부터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와 관련해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맡게 되면서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연구진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강정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과 정책 모니터링 자문을 하면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수용자 자녀 인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살펴보니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움과의 귀한 인연으로 용역에도 참여하게 되었네요.

이번 연구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경림 : 최초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또,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로 객관적인 통계를 도출했다는 의미도 있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최경옥 : 10년 전부터 관련 문제를 연구해온 학계, 민간 단체인 세움, 법률전문가인 지평과 두루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네요.

최명지 :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용자 자녀와 아동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부모의 수감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특별했어요. 수용자 자녀의 복지에 힘쓴 민간단체와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 사례, 고충, 시범적인 조치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덕분에 문제의식도 고취되었습니다.

강정은 : 이번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수용자 자녀에 관한 우리나라 법과 정책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동안 '잊혀진 피해자'로 존재했던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세움과 지평, 세움과 두루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최경옥 : 세움은 이번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 나갈 겁니다.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실무자나 교정기관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해요. 특히 지평과 두루에서 해외 사례 연구와 변호사의 시각에서 현행법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여 주었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경림 : 이번 연구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최초의 연구였다 보니 과제나 역할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에요. 지평과 두루도 법률적인 측면을 함께 모니터링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정은, 최명지 : 네, 저희도 관련 법령의 통일적인 정비와 함께 해외의 선진적인 제도들이 향후 구체적인 입법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사례에서 도출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그 고민들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INTERVIEW

02 공익활동 이야기

자녀와 함께 하는 공익활동에 대해 듣다



법무법인 지평 인사총무팀 **천춘미** 부장, 아들 **최홍원** 씨
진행 법무법인 지평 **김하영** 변호사

지평 인사총무팀 천춘미 부장과 아들 최홍원 씨(대원고등학교 2학년)는 다수의 공익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공익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들어 보았습니다.

홍원 씨는 지평과 어떤 공익활동을 하였나요?

최홍원 :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에 참여한 후, 정기적으로 빵 만들기, 연탄나눔 자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오미자를 수확했고요. 처음 시작은 어렸을 때였으니까, 엄마랑 놀러 가서 형 누나들 활동하는 것을 구경하며 같이 뛰어노는 정도였고, 중학교 때는 학교 의무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좀 나갔는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을 이끌고 참여하는 등 점점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천춘미 부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공익활동 제안을 하셨나요?

천춘미 : 외동아들인 홍원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학했을 때, 공익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가 욕심쟁이가 안 되었으면 한다. 공익활동을 곁에서 보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에 같이 가보자고 권유했어요.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었는지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의 삶 속에 공익활동이 잘 스며드는 것 같아 대견하고 기쁩니다.

공익활동을 하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최홍원 : 중학생 때 엄마랑 빵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만든 빵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시는 모습과 그때 느껴졌던 뿌듯한 감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때부터 공익활동이 진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평과 함께한 공익활동이 홍원 씨의 꿈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요?

천춘미 : 저는 연탄 나르기 봉사가 기억에 남아요. 연탄 봉사는 추울 때 하잖아요. 그때 홍원이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고, 주민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돕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이 무언가 진지하게 행동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 기억나요.

최홍원 : 저는 언론인, 그중에서도 기자가 되고 싶어요. 기사는 사회를 잘 알아야 하고, 먼저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평과 함께한 공익활동에서는 사회의 음지, 우리 공동체가 개선할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윤희근 과장
진행 법무법인 지평 장품 · 김승현 변호사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4회, 봄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 관악산 산 정화 활동, 거례열 학교 놀이공원 나들이 자원활동, 가을 농촌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나눔 자원활동. 2017년 한 해 동안 윤희근 과장이 맘을 흘리며, 칼바람을 맞으며 숨 가쁘게 지리했던 따스한 현장입니다. 2017년 지평의 봉사활동왕 타이틀을 거머쥔 윤희근 과장을 만나, 꾸준한 공익활동 비결을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참여한 여러 공익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거례열학교 학생들과 놀이공원 나들이를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한국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생 두 명과 함께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놀았는데, “삼촌, 삼촌” 하면서 저를 잘 따랐어요.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 또래였던 시절도 떠오르고, 조카 같기도 해서 눈에 밟혔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남지요.

공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평에 입사하면서 공익활동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봉사활동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평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윤희근에서 이미 공익활동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셨던 오세훈 차장님 등 동료들의 영향도 있었고요. 한번 참여했다고 그만할 수도 없고, 공익활동 조끼도 받은 김에 계속해서 하게 되었지요.

공익활동을 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제가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변호사님들, 각 행사를 주최하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리에 잠시 다녀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녀오고 나면 맘을 흘려서 기분도 좋고, 다른 직원들과 친해질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제 딸아이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아빠한테 상도 주니,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윤희근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익활동’이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왕’이라는 과분한 상도 받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사실 지평에 저보다 훨씬 공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아자!

INTERVIEW

03 공익활동 이야기

‘올해의 봉사활동왕’ 윤희근 과장의 공익활동을 듣다



INTERVIEW

04 공익활동 이야기

법무법인 지평 **고효정** 변호사
진행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

새내기 센추리클럽 고효정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듣다

지평과 두루는 2016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를 '센추리클럽'으로 선정하여 공익활동 활성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5명의 변호사(김지형 대표변호사, 명한석, 박용대, 임성택, 권장영, 여연심, 최정규, 박성철, 박호경, 구나영, 구정모, 고효정, 김승현, 최명지 변호사, 정진 외국변호사(미국))가 10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센추리클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공익소송과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여 자문그룹에서 공익활동을 독려하는데 모범이 되고 있는 고효정 변호사를 만나 공익활동 비결을 들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공익활동을 했나요?

자문업무로는 배어베터에 대한 법률 실사, 사회적기업의 각종 계약서 검토 업무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특성상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자문변호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송사건도 진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평소 자문그룹에서 경험해보기 힘든 업무라서 법률업무를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내용은 결국 변호사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는 '나 자신'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제가 변호사로서 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덕분에 업무에서 오는 괴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공익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공익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근히 소심한 성격 탓에 1년차 변호사였던 2016년에는 공익활동에 많이 자원하지 못했습니다. 자문그룹 변호사들이 잘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대체로 예비구성원 변호사 1명, 구성원변호사 1명이 진행했거든요.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익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짐 덩어리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2016년 공익보고서에서 지평 내에서 공익활동을 연간 100시간 이상 수행한 변호사들의 모임인 '센추리클럽' 인터뷰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입사 전에 했던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익활동을 해 보니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이 좋았나요?

자문그룹 업무는 배당이나 업무량의 예상이 쉽지 않아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 두루에서 대리한 지뢰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신청기각결정의 취소소송의 소장을 함께 작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소장작성 작업이 시작된 직후 새로운 업무가 진행되면서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고, 기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말아놓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럽고 자괴감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문그룹 변호사님들이 공익활동을 주저하게 되지는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제 부끄러움과 자괴감,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두루 변호사님들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늘 함께 채워주셨고, 제가 흥미를 가질만한 사건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자문그룹 소속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두루 변호사님들과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05 공익활동 이야기

법무법인 지평 김판수 · 강민제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루트임팩트 박연경 · 최지훈 매니저,
 빅이슈 안병훈 대외협력국장
 진행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

협력 단체로부터
 지평과 두루가
 나아갈 길을 듣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던 12월의 어느 밤,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루트임팩트 멤버들과 지평, 두루의 변호사들이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루트임팩트'가 소셜 벤처와 자문 변호사들의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평 임성택, 김판수, 강민제, 이유진 변호사, 두루 김용진, 최초록, 이태영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트임팩트 담당자, 참여 기업 및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헤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판수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떤 기업이 사회적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민제 : 성수동 일대 야경이 보이는 멋진 곳에서, 다양한 입주사 직원분들을 만나 그동안 접해볼 수 없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대보다 즐거웠습니다. 연말이라 다소 업무가 밀린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갔으나, 루트임팩트 분들과 입주사 분들께 도리어 좋은 에너지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유진 : 개인적으로 소셜 벤처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프로보노 활동을 할 때 대상 기업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대상 기업 분들의 면면을 직접 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성장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다시금 되었습니다.

김용진 : 그동안 여러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해왔지만, 이렇게 자문 변호사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기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단체의 입장에서는 자문 변호사들을 만난 경험이 어땠는지요?

안병훈 : 사회적기업가, 체인지 메이커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때로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친구 같은'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엄청난 자산입니다. 공익미션과 뛰어난 공감 소통 감각을 가진 지평과 두루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번 기회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진행한 루트임팩트는 어떤 점을 느꼈나요?

박연경 : 저희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기에 소셜 벤처가 당연한 상황과 감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 드리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는데,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트임팩트를 비롯하여 소셜섹터 내 플레이어들의 성장과 발전의 저변에는 지평과 두루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지훈 : 바쁜신 가운데 일곱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변호사들과 소셜 벤처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점도 뜻 깊었습니다.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두루와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 잘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평과 두루도 잘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7년에도 '한 뼉' 더 성장하였습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남겨진 자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일상적인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들,

지뢰 사고로 평생 고통을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지뢰 피해자와 그 유족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온갖 법률리스크에 노출된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걷고, 함께 뛰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두루는 앞으로도 이 세상 모두가 '두루'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힘을 내어 될 것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당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당신, 잘 계신가요?

“ Si vales bene est, ego valeo.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Si vales bene, valeo.

당신이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한동일, <라틴어 수업>

2017년
두루를
후원해주신
분들

법무법인 지평 강민제 강성국 강영주 강원일 강울리 강정은
고기승 곽은비 구나영 구상수 구자형 권영환 권창영 김다희
김무자 김병률 김병선 김상준 김석동 김선국 김성수 김승현
김영문 김영수 김옥림 김용길 김용진 김윤희 김이태 김재원
김중윤 김지형 김지홍 김진권 김진희 김태형 김판수 마상미
민창욱 박경택 박근배 박보영 박상배 박성철 박영주 박준석
박지선 박호경 반기일 반정현 배성진 백종현 사봉관 서도원
서문용채 성보성 손계준 손수현 송한사 신승기 신중길 심희정
안상훈 양영태 여연심 오자성 유정환 윤석호 윤성후 윤영규
윤재민 이공현 이공형 이광선 이병주 이상희 이소영 이승민
이승현 이은영 이종인 이종현 이주언 이준길 이춘원 이태현
이행규 이해은 이홍재 이 훈 임성택 임이지 임혜정 장 성
장윤정 장 품 장항석 정 원 정정태 정 진 정 철 채희석
최명지 최세훈 최승수 최정규 최정묵 최진숙 최초록 한승혁
한철웅 황인영

두루 FUN-딩

후원계좌 및 문의

신한은행

140-010-878456

(예금주 :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02-6200-1853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스승의 날을 기리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의 따뜻한 인연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두루 펀딩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두루 펀딩, 어떤가요?

두루
기부자
인터뷰

평소 두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루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바쁘
게 일하다 보면 점차 실천하는데 힘들어지잖아요.
두루는 지평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DNA 같은 존
재예요. 두루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만큼, 지평과
두루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두루 변호사에게 소고기를

꼭 사주고 싶다는

정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두루에 생일 펀딩과
스승의 날 펀딩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평의 박보영 변호사가 저에게 생일 펀딩을 해줬었
는데, 다른 선물에 비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
실 생일 펀딩이라는 게 진짜 실물을 받는 건 아니잖아
요(웃음). 그럼에도 생일 펀딩을 받고 나서 꽤 오랫동안
안 여운이 남고, 두고두고 기분이 좋아서 저도 생일
펀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건
설부동산팀 후배들 생일 때에는 꼭 생일 펀딩을 해
줄 생각입니다. 두루에서 후배들 생일 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형 대표님께서 제 연수원 스승님이시라 매년 선
물을 드렸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생일 펀딩을 받
았던 시기랑 비슷했어요. 대표님이 두루 이사장이시
기도 해서 스승의 날 펀딩을 하면 다른 선물보다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
니다. 대표님도 좋아하시고, 같이 선물을 준비한 동
기들도 좋게 받아들여 줘서 더욱 좋았습니다.

두루 기부자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세요.

두루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급여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청빈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두루 변호사들이 지평과 같이 더 많이 일하고, 함께
하려면 펀딩을 더 많이 받아서라도 급여를 현실화하
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펀딩을 더 자주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1.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7년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명칭: 지평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5:119 (변호사 100명 당 4.2명)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두루 상근변호사 및 직원, 공익위원회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트 등 행정업무 지원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연간교육시간: 34.5시간
B 활동	1.B.1 총 공익활동 시간	5,935.29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3.16% (5,935.29:187,667.67)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9.88시간 (5,935.29시간:119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51.17시간 (5,935.29시간:116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7.48% (116명:119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72.27% (86명:119명)
	1.B.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소속변호사 54명 98.15% (53명:54명), 41.25시간 (2,227.30시간:54명) 구성원변호사 65명 96.92% (63명:65명), 57.05시간 (3,707.99시간:65명)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공익활동 지원비	28,009,556원
	공익활동 교육 지원비	7,371,510원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263,780,000원
	총액	299,161,066원

분야	평가지표	2017년
B 활동	1.B.9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대리: 81건
		공익자문 의견: 409건
		공익상담: 265건
		도움받은 사람: 약 755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 공공기관, 협력 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 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자원자 배당	
1.B.12 공익활동 지원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C 평가·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 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소속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7년
A 기부	2.A.1 기부 총액	354,855,000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1,025,592원 (346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6.48% (342,355,000:354,855,000원)
	2.A.4 기부 현황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B 사회봉사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2,581.5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7.46시간(346명)
	2.B.2 사회봉사활동 현황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국내 변호사 119명(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다만, 휴직자, 해외사무소 근무 등의 사유로 공익활동 면제를 신청한 자는 제외함).

※ 공익전문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직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평 공익의 날 · 두루 창립기념일

JIPYONG

범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2017년 사회 책임 이행 내역

법과 윤리

01. 로펌 내 이익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지명 윤리헌장 존재(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크시스템 존재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노력 시행 등

02. 위법행위 발견 시 통제절차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존재
(윤리헌장 13조 :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절차)

03. 공정한 전문가 활용

공직퇴임변호사 수입제한 의무 준수
비변호사 고문의 숫자가 매우 적음(12명)

* 위 표의 항목은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통계와 활동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별금지과 인적 다양성

01. 구성원의 다양성

높은 여성변호사 비율(전체변호사 중 35.3%, 파트너 중 18.9 %)

시각장애인 미국변호사 채용(2015. 9. 1.)

전체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7%로, 의무고용률 준수
(해외지사를 포함할 경우 2.89%로 의무고용률에 미달)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근무

탈북민 근무

‘예비구성원회의(예비구성원변호사 모임)’ 보고서 내용을 수용·이행하고, ‘소울(직원 모임)’ 등을 통하여 경영과정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02. 소수자 차별금지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존재
(소수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활동을 주요 공익활동으로 설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사용

03.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

성별,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

입사지원서에 부모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미표기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노력

신입변호사들은 모두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0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변호사 : 출산휴가 3건, 육아휴직 1건, 혼합사용 4건

직원 : 출산휴가 2건, 혼합사용 11건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4건, 육아휴직 1년 1건

임신 기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3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무제 1건

출산으로 인한 인사평가(유학 대상, 승진)시 불이익 제공 금지

임신과 출산(육아) 대체인력 수급절차

- ① 기존 휴직자 복귀 시점 조율하여 대체
- ② 대체 불가시 신규채용
(정규직 또는 휴직자 복귀 시점까지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검토)
- ③ 휴직 중인 직원 업무 대체 직원 지원
(장기 부재 직원 업무 팀원 분담, 추가 수당 지급)

변호사 4년차, 직원 10년차에 안식휴가 제공(변호사 사용 14건)

기부, 사회봉사, 공익활동

기부, 자원봉사, 공익소송의 수행·지원, 무료법률상담,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 예비공익변호사 양성·지원,
공익단체 지원, 공익법 연구, 공익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입법지원

총 공익활동 5,935.29시간

상세내용은 공익활동 평가지표 참조(34~35쪽)

법조인 양성

01. 수습변호사 연수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대상으로 하계 및 동계 인턴 프로그램 시행

두루 공익 실무수습 프로그램 지원

02. 로스쿨 실무과목 교육 지원

소속변호사들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실무과목 강사로 활동

적절한 사건 수임

01.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수임 배제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 수임 배제(윤리헌장 3조)

02. 과도한 사건 수임 자제

탈법적 방법의 수임금지

과도한 수임 경쟁 지양

환경

01. 탄소배출 감소 활동, 재활용품 사용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기절약 캠페인, 종고책방 등 자원순환 운동 전개

이면지 사용 등 재활용품 사용 권장

02. 환경 관련 NGO 지원

환경 공익소송 수행(송전선로 피해보상 관련 헌법소송 진행 중)

환경 관련 NGO 지원

정보공개와 사회적 책임 보고

01. 구성원 현황 등에 대한 로펌 정보의 공개

로펌 정보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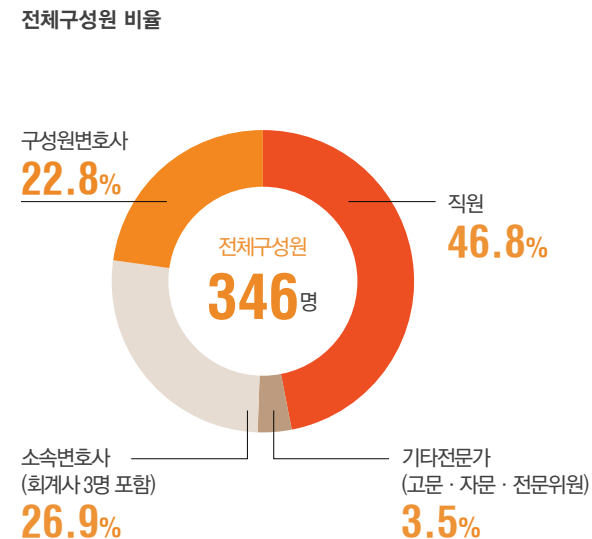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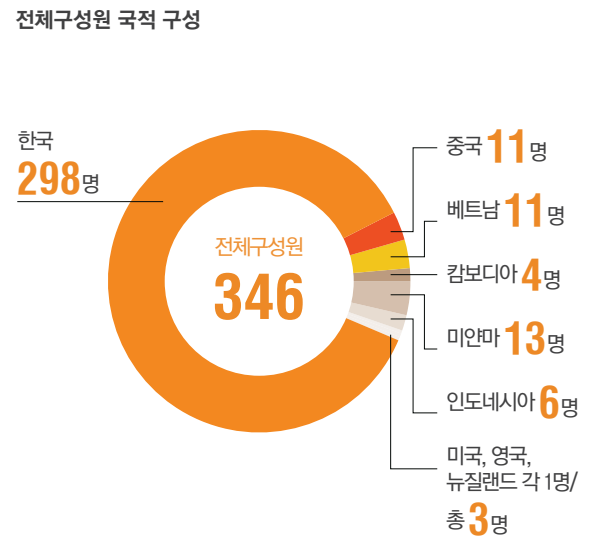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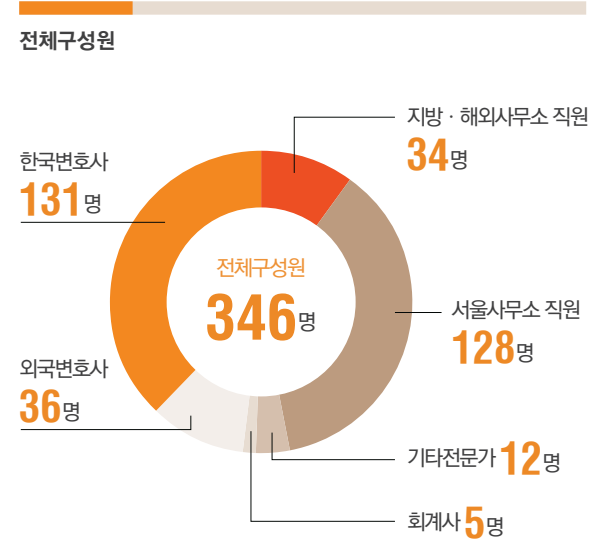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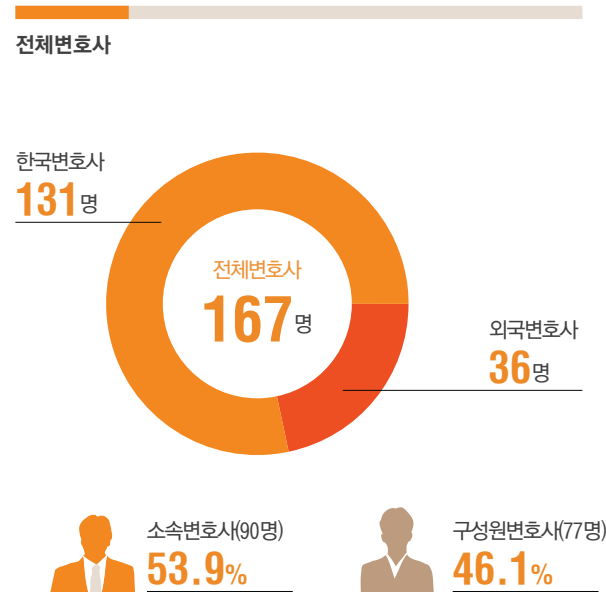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의한 정보공개

02.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로펌 최초로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구성원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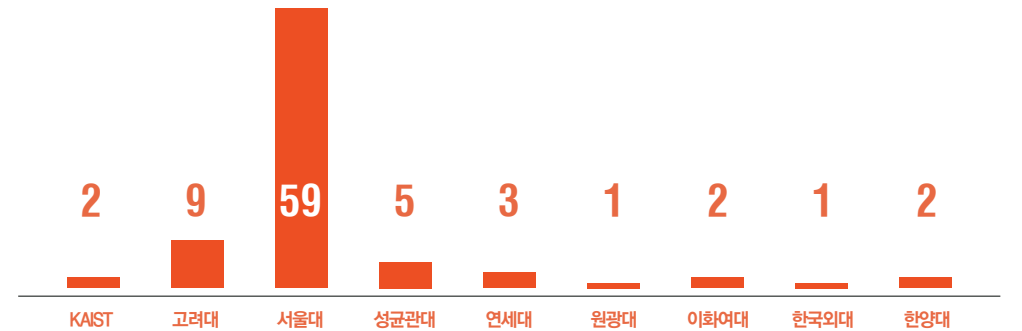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로펌,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을 지향하는 지평은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구성 (2017년 한국변호사 131명 기준)



학부(사법시험)별 변호사 구성 (2017년 한국변호사 131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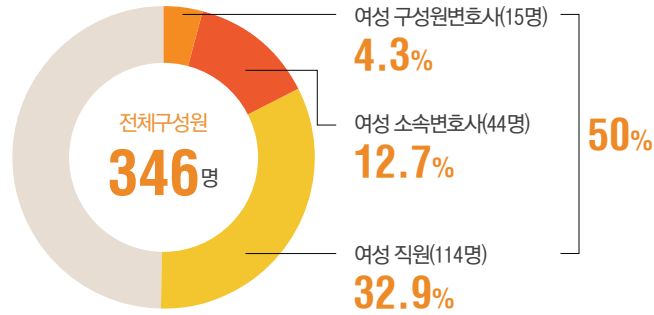


예비구성원의 제안에 따른 제도 개선

지평은 예비구성원 프로로 구성된 예비구성원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16년 말경 업무조건 등에 관한 여러 제안과 건의를 담은 예비구성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평 경영위원회는 2017년 초에 예비구성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많은 부분 수용하였으며 이를 연중 이행하였습니다. 예컨대 회사 행사방식을 개선하였고, 연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안식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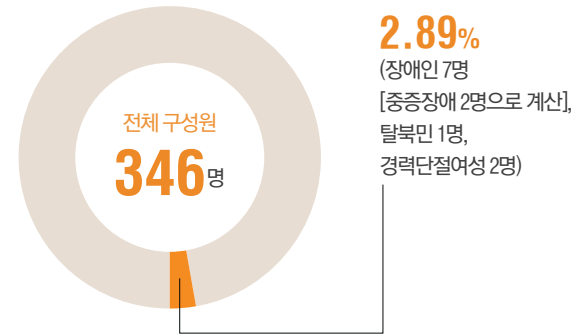
소수자 차별금지

전체구성원 중 여성 비율



*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35.3%(59명/167명)

전체구성원 중 소수자 비율 (장애인, 탈북민 등)



* 본사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7%로, 민간사업주 의무고용률인 2.9%를 초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과 두루는 4월 2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 의무자는 아니지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자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장애인권소송을 이끌어온 임성택 변호사와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내 로펌에서 근무 중인 정진 외국변호사(미국)가 '다양한 몸, 평등한 삶'을 주제로 토크쇼 형식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외에도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권소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활동

지평의 전체구성원 중 절반 가량은 여성으로, 이는 채용과 업무 등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해온 결과입니다. 지평은 회사 내에 여성위원회를 두고, 멘토 -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표슬비 변호사(여성위원회 멘티)

신입변호사로 지난 1년을 보냈는데, 회사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실제로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위원회 멘토 - 멘티 프로그램은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다른 팀의 다양한 변호사님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연차의 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모이는 그룹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 특별한 점이 많은 모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여연심 변호사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주셔서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다 같이 모여 서로 얼굴도 보고, 근황도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진행 중인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걱정거리를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 비록 뽀족한 해결책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 받는 것만으로도 충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로부터 회사나 동료 변호사님들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으며 회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깊어지기도 했고, 선배들의 고민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할지 잠시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신 저희 멘토링팀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변호사님들과의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신입, 경력직원 채용 외에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도 단절 전 경력에 맞는 포지션에 따라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시도하였습니다. 자녀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 전 직원들에게도 채용 건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은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여 범위를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채희석 변호사(HR위원회 위원장)

HR위원회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 등 각종 자료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보(부모님 직업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에 포함된 사진이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진을 삭제하는 형식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선발은 HR위원회의 추천과 경영위원회의 최종 면접 및 선발 결정이라는 2단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그간 문체점으로 지적된 특정 대학 편중에 관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턴 선발 과정에서부터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턴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2년 차 2학기 이후 선발 인원을 확대하면서 특정 대학 편중 문제를 완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HR위원회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은 기존의 제도 이외에 남성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안식휴가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는 사용기간 30일내에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유급휴가이지만, 2017년 지평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60일내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위 기간 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평은 정부의 복지 정책 시행에 앞서 2017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시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며 지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제도 도입

지평은 2017년부터 직원 중 장기근속자와 일정 근속기간을 경과한 예비구성원 변호사에게 안식휴가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프로의 경우 예비구성원 3년차(2주일), 4년차(1주일), 직원의 경우 10년차(2주일), 20년차(1주일)에 해당하는 안식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프로 및 직원들의 휴식과 충전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프로 3년차 예비구성원의 경우 75%정도 안식휴가 사용을 하였고, 팀별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지평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77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턴 선발과 채용 과정에서 서울대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다수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입니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실무수습	1차 : 2016. 12. 26. ~ 2017. 1. 6.	1학년 (8기)	19명	서울대 13명, 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국외대/경희대/건국대 각 1명
	2차 : 2017. 1. 9. ~ 2017. 1. 20.		28명	서울대 13명,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서강대/한양대 각 2명, 서울시립대/중앙대/전남대 각 1명
하계 실무수습	1차 : 2017. 6. 26. ~ 2017. 6. 30.	2학년 (8기)	17명	서울대 9명,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 고려대/한양대/아주대/부산대 각 1명
	2차 : 2017. 7. 3. ~ 2017. 7. 7.		13명	서울대 6명, 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경희대/중앙대/서강대/아주대 각 1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환경·자원 순환

환경실천소모임 활동

지평은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기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중고책방을 마련하는 등 자원순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평 사무실 각 층에는 소통과 휴식의 공간이자, 협력 강화의 공간인 라운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 8층 라운지에 자리잡은 ‘모두의 책꽂이’라는 이름의 중고책방은 라운지 중에서도 단연 높은 이용률을 자랑합니다. 중고책방은 환경실천소모임에서 2016년에 일회성 이벤트로 실시하였다가 큰 인기를 끌어 상설화되었습니다. 보지 않는 책을 내어 놓고, 다른 사람이 내어 놓은 책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운영방식이 간편하고, 작은 실천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IPYONG
DUROO
PRO
BONO**

2017 지명 공익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 강정은
강혜련
김용진
김우연
김윤희
김이태
김지형
김태형
김학규
류혜정
박용대
서준희
여연심
이동엽
이상희
이주언
이태영
임성택
임지윤
최정규
최초록
황인영

2017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서문용채
이사	강울리	서진하
	문영화	신중길
	여연심	심희정
	이혜영	안현정
	임성택	양영태
감사	김영수	오세훈
	임승혁	유정민
회원	강정은	윤재민
	강혜련	이공현
	구나영	이상희
	구정모	이소영
	김성수	이승민
	김용진	이주언
	김우연	이혜온
	김윤희	이 훈
	김태오	정미자
	김판수	최윤영
	박용대	최초록
	박호경	하지인
	배기완	한철웅
	배성진	황인영